

꼬꼬마양배추, 군산시 효자 작물 거듭나

농기센터-농진청-원예과학원 3기작 재배 연구로 연중 생산

군산시 신소득 작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꼬꼬마 양배추가 연중 생산돼 신선도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꼬꼬마 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꼬꼬마 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만 재배가 가능해 농가소득 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장 기간이 짧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했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시는 꼬꼬마 양배추를 연중 재배해 국내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전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도록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그동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심어 6월 수확, 8월 말에 심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봄 재배를 10일 앞당겨 3월 말에 심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 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심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 기간을 조정했다.

특히 기존 재배 작형 외에 하절기인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심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했다.

이로써 연간 2회에서 3회 재배로 늘려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 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일본과 대만 수출물량이 140톤에서 70톤으로 감소했다”며 “올해에도 해외수출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꼬꼬마 양배추를 이용한 김치·즙·죽·음료

등 가공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2023년까지 꼬꼬마양배추 증 가공원료 1,02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며 “아삭한 맛이 일품인 꼬꼬마 양배추 김치는 일본 현지 식미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각광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꼬꼬마 양배추는 군산시가 지난 2018년 신소득 작물 발굴로 추진했으며, 올해 4년째에 접어들면서 재배면적과 수출물량이 대폭 늘어나 지역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꼬꼬마 양배추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2년 만에 도내 유일 농식품 수출 우수지체 경진대회에서 농식품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의 공조로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신선식품으로 가공 개발하는데 큰 힘이 돼주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전북제일신문

2021년 02월 25일 목요일 007면 종합

군산 ‘꼬꼬마양배추’ 연중 생산 공급 추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벼대체 신소득작물로 재배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가 가능해 농가소득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선한 꼬꼬마양배추를 재배해 국내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2020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또 기존 재배작형 외에 하절기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올해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꼬꼬마양배추 가공품인 김치, 즙, 죽, 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허정찬 기자

군산 '꼬꼬마양배추' 연중 생산

농진청 공동 3기작 재배 신선도 유지 소득 활성화

군산의 농특산품인 '꼬꼬마양배추'의 연중 생산 및 공급이 추진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벼 대체 신 소득작물로 재배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에 들어간다.

꼬꼬마양배추는 재배 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할 수 있다. 농가소득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사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농기센터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선한 꼬꼬마양배추를 재배하기 위해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애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다.

이를 올해부터 봄 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여기에 하절기 8월과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농기센터는 재배가 연중 3회로 늘면 다양한 식품 및 의약 제품으로 활용되는 '꼬꼬마양배추'의 생산량과 판매 증가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꼬꼬마양배추'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소화촉진, 소화불량 해소 등 건강한 위장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비타민U로 알려진 MMSC 성분은 꼬꼬마 양배추가 일반양배추보다 1.6배가량 높게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시 기술보급과 김미정 과장은 "안정적인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가공품인 김치, 즙, 죽, 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새만금일보

2021년 02월 25일 목요일 007면 지역

'꼬꼬마양배추'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 박차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3기작 재배 연구 돌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벼 대체 신소득작물로 재배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가 가능해 농가소득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선한 꼬꼬마양배추를 재배해 국

내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지난해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기존 재배작형외에 하절기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

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일본과 대만 수출물량이 지난해 140톤에서 70톤으로 감소하고 앞으로도 해외 수출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에는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꼬꼬마양배추 가공품인 김치, 즙, 죽, 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23년까지 꼬꼬마양배추즙 가공원료 1,02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아삭한 맛이 일품인 꼬꼬마양배추김치는 일본 현지 식미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순정일 기자

군산 ‘꼬꼬마양배추’ 연중 공급 추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



군산 꼬꼬마양배추 3기작 재배 연구 추진.

군산시농업기술센터은 벼대체 신소득 작물로 재배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가 가능해 농가소득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

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선한 꼬꼬마양배추를 재배해 국내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2020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기존 재배작형 외에 하절기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일본과 대만 수출물량이 지난해 140톤에서 70톤으로 감소하고 앞으로 해외수출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돼 금년에는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꼬꼬마양배추 가공품인 김치, 즙, 죽, 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2023년까지 꼬꼬마양배추즙 가공원료 1,02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아삭한 맛이 일품인 꼬꼬마양배추김치는 일본 현지 식미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군산 꼬꼬마양배추 소비자식탁에 연중 공급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3기작재배연구공동추진
연3차례 수확소득향상기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벼 대체 소득작물로 재배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가 가능해 농가소득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선한 꼬꼬마양배추를 재배해 국내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2020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공동으로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기존 재배작형 외에 하절기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일본과 대만 수출 물량이 지난해 140톤에서 70톤으

로 감소하고 앞으로도 해외수출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돼 금년에는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꼬꼬마양배추 가공품인 김치, 즙, 죽, 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2023년까지 꼬꼬마양배추즙 가공원료 1,02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아삭한 맛이 일품인 꼬꼬마양배추김치는 일본 현지 식미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군산 '꼬꼬마양배추' 연중 생산 공급 돌입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 3기작 재배 연구 추진 · 농가소득 향상 기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벼대재 신소득작물로 재배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가 가능해 농가소득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선한 꼬꼬마양배추를 재배해 국내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지난 2020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

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기존 재배작형 외에 하절기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일본과 대만 수출물량이 지난해 140톤에서 70톤으로 감소하고 앞으로도 해외수출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돼 금년에는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꼬꼬마양배추 가공품인 김치, 찜, 죽, 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오는 2023년까지 꼬꼬마양배추증가공원료 1,02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아삭한 맛이 일품인 꼬꼬마양배추김치는 일본 현지 식미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민일보

2021년 02월 25일 목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꼬꼬마양배추' 연중 3기작 생산 · 공급 추진

농진청 원예과학원과 공동 재배 연구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

꼬꼬마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국내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2020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 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 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기존 재배작형 외에 하절기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군산 '꼬꼬마양배추' 연중 생산 추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 3기작 재배 연구

군산시농업기술센터은 벼대체 신소득작물로 재배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가 가능해 농가소득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선한 꼬꼬마양배추를 재배해 국내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2020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기존 재배작형 외에 하절기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금년에는 꼬꼬마양배추 가공품인 김치, 즙, 죽, 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2023년까지 꼬꼬마양배추즙 가공원료 1,02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꼬꼬마양배추김치는 일본 현지 식미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 농기센터, 꼬꼬마양배추 3기작 재배 연구 추진

군산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연간 세 차례 수확할 수 있는 3기작 재배 연구가 추진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논에 벼대신 재배할 수 있는 고소득 대체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꼬꼬마 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두 차례 재배만 가능해 농가소득 효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시는 재배면적을 작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세 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군산=이환규 기자